

평온 요양원

뉴저지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로
주정부 평가 최고
Five Star 인증

한인 분들을 더욱 정성껏 모십니다

문의 및 상담
최진희 908-380-0619
622 South Laurel Ave. Hazlet NJ 07730

FAMILY VISION CENTER

Dr. Douglas M. Lee, Optometrist

- Eye Exams
- Eye Glasses
- Contact Lenses
- Eye Disease Treatment
- Refractive Surgery Consultant

1734 Lincoln Hwy.(Rt.27)
Edison, NJ 08817
Tel. 732 / 393-1210
Fax 732 / 393-1140
www.DrDouglasLee.com

KIMS BIKE SHOP

732-846-3880
111 French St. New Brunswick NJ 08901

CHUCK'S

프린스턴/의명/소
SPRING STREET CAFE

Buffalo Wings, Burgers & Dogs, BBQ Ribs & Combos
EAT IN / TAKE OUT
609-921-0027
ChucksSpringStreetCafe.com
Delivery via Doordash or Grubhub 16 Spring St. Princeton NJ 08542

은퇴플랜 및 재정설계 컨설팅

Advisors U Trust, LLC

401k, IRA, Annuity (개인연금)
생명보험, 메디케어 & 건강 보험
자동차 주택 건물 비지니스 보험

박가브리엘 (732) 865-1597
Licensed in NJ & NY
advisorUtrust@gmail.com

UnitedHealthcare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귀하가 선택하실 수 있는
메디케어 혜택을 알아보십시오.

한국어 무료 전화
1-877-718-3682 (TTY 711)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LG 약국

Christine Eo | Pharm D. 약학박사
Tel. 732-354-3777
Fax. 732-354-4909 카톡 ID : 888LG
244 Plainfield Ave, Edison, NJ 08817

김자탕, 순대, 도시락전문
732-248-1775

덕수궁

475 Old Post Rd. Edison.

B&B Auto Repair

Seo Y. Park
175 Woodbridge Ave.
(Rt. 514)
Highland Park, NJ 08904
Tel (732)985-9500
Fax(732)985-7637

인병원

교통사고, 물리치료, 한방치료, 통증의학
T. 732-287-1990

Su-Ra Catering

새로 이전한 수라 케이터링에서
더 깊은 풍미를 느껴 보세요
732-287-6719
1609 Lincoln Hwy. Edison, NJ 08817

김치/하나

KOREAN-JAPANESE RESTAURANT
T 908.755.0777

김상우 한의원

Sang Woo Kim Acupuncture & Herbs
디스크/요통/손목/무릎/오십견
한방내과, 부인과, 소아과
알러지, 중풍 클리닉
732-248-1980 | 1939 RT.27 Edison NJ 08817

Central Funeral Home

중앙장의사
Manager: Gina Chong, NJ Lic #4904
201-945-2009
809 Broad Avenue
Ridgefield, NJ 07657

SANSONE AUTOMALL

90-100 RT.1 Avenel NJ 07001
201.852.3232
Manny Kim

TOYOTA KIA NISSAN MAZDA Jeep CHRYSLER

모든 차종,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연중 제6주일
2020년 2월 16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00 PM
수 ~ 금 - 9:00 AM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00 PM
일요일 (영어) - 8:00 AM
(영어) - 10:00 AM
(한국어) - 11:30 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 10am~3pm
http://www.edisonkcc.org

에디슨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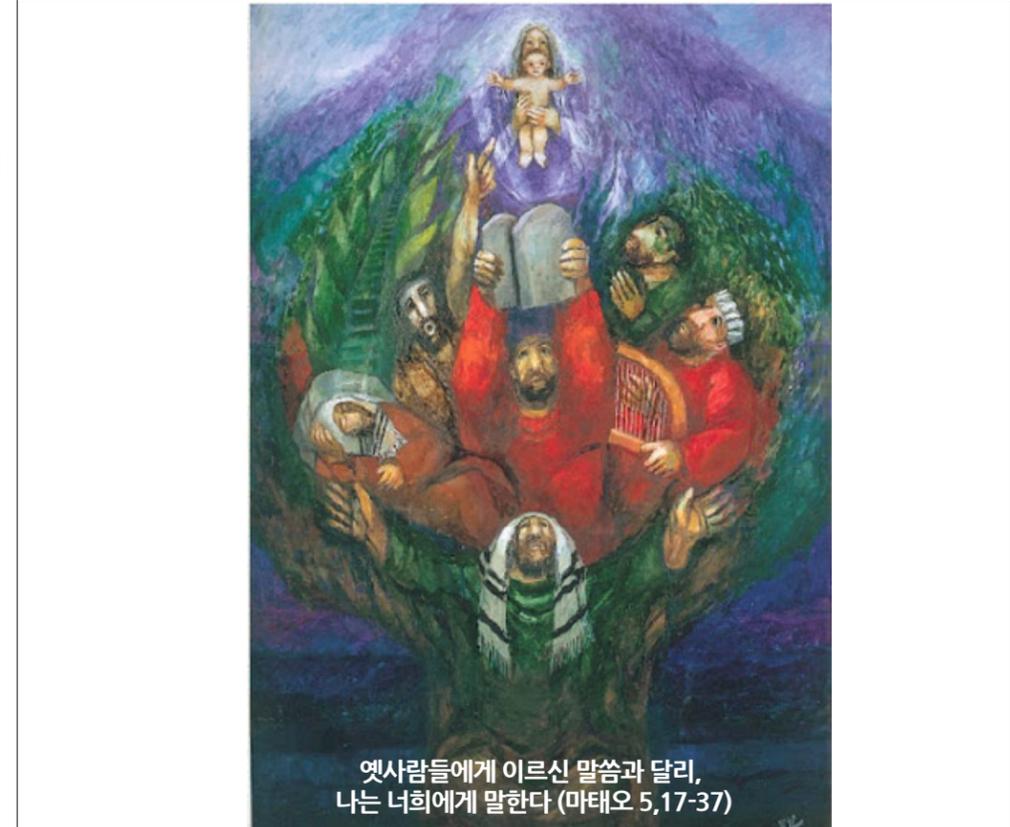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한상철 빈센시오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과 달리,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마태오 5,17-37)

<이번주 전례 안내>

제1독서 집회서 15,15-20
화답송 시편 119(118), 1-2.4-5.17-18 (© 1)

복음 마태오 5,17-37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과 달리,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전례 성가	입당성가	봉헌성가	성체성가	파견성가
	337번	219번, 342번	168번, 158번	77번
성체 분배	# 2/16 이재성, 임문수		# 2/23 김영필, 곽신규	
안내 봉사	# 2월: 모든 성인의 모후 Pr. # 3월: 사랑하올 어머니 Pr.		# 2/16: 사우스브런스워 # 2/23: 먼로 # 3/1: 친교없음	
신자들의 기도	# 2/16: 임문수 마르코		# 2/9: 최혜자 헬레나 김정화 로사	

미사지향

연미사 (봉헌자)

- 김상기 (요셉) - 가족, 반석회
- 조원봉 (빈첸시오) - 가족
- 장인석 (미카엘) - 가족
- 이화자 (마틸다) - 가족, 김진자
- 김명자 (헬레나) - 가족
- 김교식 (야고보) - 가족
- 한정숙 (레지나) - 가족
- 최상목(세실리아) - 피스브릿지구역
- 이예두 (요셉), 장치숙 (아가다) - 이 이레네

생미사 (봉헌자)

- 오홍순(카타리나) - 오.사.모, 홍 비안네
- 최기쁨, 밝음, 누리 - 최 율리아나
- 이호기 - 강미령(마리아)외 6명
- 민규란(엘리사벳) 가정 - 먼로 구역
- 이종민(예비자), 김진희(아우델리아), 이예원(김벌리 데오도라) - 성 미카엘라
- 오재현(마이클) - 김동근(사도요한) 가족

지난 주 우리의 정성

구분	1차 헌금	2차 헌금	합계
KCC	\$1,450	-	\$1,450
OLM	\$3,252	-	\$3,252
합계	\$4,702	- \$4,702	

미사 참석: 183명

교무금 안내

배인경 (1-2)	양영길 (1-2)	이상화 (2)
우영인 (1-2)	김진 (2)	정영욱 (1-2)
최완준 (1-3)	임문수(2)	하건철(1-2)
신희선(1-12/19)		합계 \$1,310

-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차 헌금, 교무금, 감사헌금 - Payable to OLM (교무금의 경우 월, 세대주 이름 및 본명을 꼭 기입해주세요)

단체 모임 안내

- #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2월 16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 **전례회의**
- 일시 및 장소: 2월 16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 **구역장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2월 23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공지 사항

2차헌금 안내
- 이번 주일(2월 16일) 미사 중 성당 유틸리티 비용지원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재의 수요일 한국어 미사
- 일시 및 장소: 2월 26일(수) 저녁 8시 성당
- 작년 성지주일에 축복하여 각 가정에 보관중인 성지가지를 2월 23일(주일)까지 성당 입구 회수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견진성사 신청자 모집
-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 견진성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또는 이서형(요안나) 선교분과장님께 연락바랍니다.

2019년 교무금 납부 증명
- 2019년 세금 보고용 교무금 납부 증명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Rosary Altar Society 주관 Bake Sale Donation 안내
- 미 신심단체 Rosary Altar Society 주관으로 매해 개최되는 Bake and Flower Sale에 Baked Item을 기증해주실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국성지순례단 모집
- 일시: 2020년 10월 20일 ~ 10월 30일(10박11일)
- 지도사제: 이남웅(스테파노) 신부님
- 순례지: 제주, 부산, 전주, 대전, 청주, 수원, 서울대교구 성지 임진각 파티마 평화의 성당 남북통일 기원미사 후 서울귀환
- 참가신청비: \$3,000
- 신청방법: 여권카피와 예약금 \$1,000 (선착순 25명)
- 신청 마감: 3월까지
- 신청 및 문의: 사무실 / 마리아 투어 212-594-7773

연령회에서 노래로 하는 연도 연습이 2월 25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매월 두번씩 있을 연도 연습에 각 구역에서 한 분 이상씩 돌아가면서 참석해주시기를 권고합니다.

3월부터 매월 첫째 주일은 친교가 없습니다.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 프란치스코, 최규학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김진철 요한, 오옥순 수산나, 정영욱 수산나, 최경삼 안나, 김경희 수산나, 오홍순 카타리나

구역 모임 안내

썸머셋 구역모임
- 일시: 2월 16일 (주일) 오후 2시
- 장소: 유병기(베네딕도) 형제님 댁 (908-507-5688)

이스트브런스윅 구역모임
- 일시: 2월 22일 (토) 저녁 6시
- 장소: 박락준(베드로) 형제님 댁

피스브릿지(피스카타웨이, 우드브릿지) 구역모임
- 일시: 2월 23일 (주일) 오후 2시
- 장소: 최현지(안토니아) 자매님 댁
4 Tuscan Rd. Edison NJ 08820

먼로 구역모임
- 일시: 2월 23일 (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17-37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 드러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 앙 칼 럼

오른손, 왼손 그리고 입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는 많은 상식 중에 “왜 그렇게 하는 거지?” 하면서 의문을 갖지 않는 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성체를 모실 때 “왜 왼손이 위로 오른 손이 아래로 해서 성체를 받는지?”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첫 영성체를 할 때 배운 그대로 지금까지 해오고 또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오른손으로 왼손을 받쳐드는 모습으로 성체를 모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오른손을 주된 손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일반적인 통념이나 신앙적인 부분에서 오른 쪽이 가진 “바르고 정의롭다”라는 의미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체를 받아 모시면, 먼저 왼손 위에 성체가 놓여지지만, 성체를 집어 모실 때는 오른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인 것이죠. 참고로 두 손으로 성체를 받는 모습은 소중한 것을 다루는 인간의 자세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모로 왼손을 위에 오른손을 아래로 해서 두 손으로 성체를 모시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나 또는 봉사자들이 성체분배를 할 때, 성체를 받아 모시는 손의 모양과 위치를 보고 이 사람이 가톨릭 신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체를 모시는 손의 위치와 모양에 대한 교회 안에서의 규정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신자들이 한 마음으로 또 경건하게 성체를 받아 모시도록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 가르쳐 온 전통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체를 받아 모시는 방법에 대한 규정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된 손, 곧 주로 쓰는 손으로 성체를 집어 받아 모실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사람마다 주로 쓰는 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오른손이 위로 올라 오든, 왼손이 위로 올라 오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톨릭 신자여야 성체를 모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교회의 가르침을 잘 지키기 위해 통일하여 오른손이 아래로 왼손이 위로 올라 오도록 손을 포개어 성체를 받는 모습이면 더욱 좋겠죠.

보편교회 안에서는 사실, 손의 모양과 위치의 문제보다 더 크게 대두된 문제는, 성체를 모실 때, 손으로 모셔야 하느냐, 아니면 입으로 직접 모셔야 하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입으로 모시는 이유는, 생활 속에서 여러 모로 쓰이는 손은 더러울 수 있으니 입으로 직접 모시는 것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더욱 경건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면, “입을 벌려 무엇인가를 받아 먹는다”라는 의식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꺼려할 것이기에, 가톨릭 신자인지 아니면 비신자인지 가려내기가 용이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입으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전통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보편교회는 그래서 성체를 입 또는 손으로 받아 모시도록 모두 허용 했습니다. 다만, 이 모든 방법들이 성체와 성혈에 보이는 우리의 지극한 정성과 경건한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체를 왼손으로 집든, 오른손으로 집든 성체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해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성체를 모셔야 한다는 것을 더 깊이 되새겼으면 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되도록이면 통일하여 지금과 같이 왼손을 위로 오른손을 아래로 하여 성체를 받고, 오른손으로 집어 성체를 영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법이 우리의 성체에 대한 경건함을 드러내고 우리 신앙을 지키는데 좋은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복음 묵상 나눔 (연중 제6주일)

말씀 안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 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눕니다.

1.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마태 5,24)
나에게 가장 처음으로 심한 말로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2.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마태 5,28)
마음에 욕심과 탐욕이 일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립니까?
3. “‘예.’ 할 것은 ‘예.’” (마태 5,37)
‘하느님께서 내 마음을 이미 알아주시겠지’하며 억울함을 참아낸 적이 있나요?